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1월

선교편지 제 106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곤 하지만, 2017년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허락하신 '바카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함에 따라, 성탄절 준비에 그전보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 했습니다. 주일마다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디고스 예일 교회', '익핏 예일 교회' 그리고 '바카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은 주일에 도저히 세 곳의 성탄절 예배를 드릴수 없어서 다바오에 위치한 바카카는 한 주일을 앞 당겨서 12월 17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카카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에 어린이들의 부모님을 초대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바카카 지역은 이슬람권 마을 이어서 주민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탄절이야말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을 초대하고, 찬양과 율동은 물론이고, 특별히 나이별 수준에 맞추어 성경 암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안으로 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거의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성탄절만큼 아이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과 동참한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를 하여 모두들 성탄절을 기다리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마침내 바카카 사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찬양과 성경 암송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율동과 찬양을 할 때 같이 흥겹게 따라해 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암송할 때 한 마디도 놓치지 않을 것처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두 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엘 2:28)**

그런데 문제는 모든 예배가 끝난 이후, 참석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간식과 선물을 나누어 줄 때 생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원활하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순서와 방법을 미리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눈 앞에 보이자마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선물을 먼저 받기 위해서 차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즐거운 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잡 가운데에서도 한사람도 빠짐없이 준비한 선물을 모두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조심스러웠던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개선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슬람권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다가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게 닫힌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의 물결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겔 48:35)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민다나오 지역에 태풍 '덴빈 (Tembin)'이 상륙 하여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고, 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섬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다바오의 중앙을 통과하는 다바오 강이 범람하여 강변 지역은 완전히 침수가 되고, 갈 곳이 없는 이재민들은 대로변에 임시로 숙소를 만들어 마치 도시 전체가 전쟁을 치루는 피난민 수용소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비교적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풍으로 단수와 정전과 같은 작은 불편함 밖에 없었지만, 약 50 m 정도 떨어진 아랫 동네는 강물의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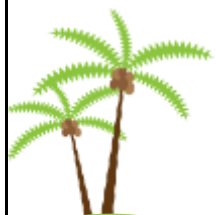
강변에 위치한 '바카카 마을'도 이번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5 ~ 2 m 정도의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 전체가 침수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 둔 상태에 급하게 대피하는 가운데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범람한 물이 아직 무릎까지 차 있었지만, 도저히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물을 가르며 마을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처참한 모습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남아있는 가재도구를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장소도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벽면에 남긴 흔적을 보니, 제 어깨 높이만큼 물이 넘쳐 들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했던 모든 물품들은 물과 진흙으로 도저히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실이 되었고, 벽면과 바닥은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럴진대, 가족 중에 인명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는 까닭에 매우 더딘 속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일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마을 전체가 아직 진흙밭 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옷가지들과 식품을 가지고 주민들을 방문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무거운 구호품을 어깨에 매고, 온 몸에 진흙이 범벅이 되어 이웃을 방문하면 낯 익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그전과 같이 평화스러운 마을 모습으로 돌아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바카카 사역'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벽면과 바닥은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고, 각종 집기와 책들도 새롭게 장만을 하여, 그전보다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하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향한 적극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지난 12월 17일 성탄절 예배 이후 아직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사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설이 복구되어 맡겨주신 사역을 이전보다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바카카 사역을 통해서 이곳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속히 주의 길로 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리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욘 38:25)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